

한국 #MeToo 운동의 전개와 확산 요인에 대한 고찰

-박원순 사건을 중심으로-

노자키 아야카 (시즈오카현립대학)

1. 선행연구와 연구 목적

2017 년부터 세계적인 확산을 보인 성폭력 · 성희롱을 고발하는 #MeToo 의 영향은 한일 양국에도 미쳤다. 특히 한국에서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돼 한국 사회의 성인지감수성 (Gender Sensitivity)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도 ‘#MeToo’는 존재했지만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한일 간의 차이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

먼저 한국에서의 "#MeToo" 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채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다. 운동의 확산 요인에 관해서는 그 운동방식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룬다. 첫째, 인터넷 이용 증가와 SNS 수요라는 배경에 대한 지적이다(이희은 2018; 김은주 2020 등). #MeToo 운동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도록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의 특성이 크게 활용된 운동이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특히 대부분의 젊은 층이 일상적으로 각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이러한 영향은 #MeToo 운동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피해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도 급속히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페미니즘 운동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또한 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여럿 존재할 경우 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이희은 2018). 특히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비용과 장벽을 낮추면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들에게 참여 행위의 효과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개인화된 매체이면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로 작동했다(김은주 2021).

둘째, TV 나 신문 등 주류 언론 보도의 영향이다(이미숙 2019. 주은혜, 백영민 2018 등). 한국 #MeToo 의 발단이 된 서지현 전 검사의 안태근 검찰국장 사건 고발도 TV 방송 라이브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라이브 인터뷰가 지워졌던 ‘목소리’에 장을 제공했고, 이 점이 일본과의 큰 차이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미숙 2019).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할 필요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매스미디어가 해낸 역할은 부인할 수 없다. 즉 한국에서는 매스미디어가 하나의 어젠다로서 기능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며, 일본과 비교할 때 중요한 확산 요인의 하나로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식에 섰을 때 한국의 #MeToo 운동 확산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특유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또한, 최근 한국 미투운동 중 특히 주목을 받았던 사건 중 하나인 "박원순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젠더 문제와 그에 대한 페미니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피해자들의 발화(發話)가능케 한 배경을 모색한다.

2. 박원순 사건 검토 - 2 차 피해는 왜 일어났을까-

박원순 사건(2020 년 7 월)은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전형적인 사건이었고,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 차 피해의 심각성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사건 발각 전에 가해자가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중단을 발표했고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도 분단되었다. 이로 인해 사건 발각 후 신속한 진상규명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결과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사건 발각 초기에 일관되게 피해자를 ‘피해호소인(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해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선택함으로써 본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호 권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 차 피해로 이어졌다. 과거에 #MeToo 운동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던 정치인들도 침묵을 지켰다.

그렇다면 왜 2 차 피해는 확산되었을까. 박원순 사건에 대한 논쟁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첫째, 박원순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와 그것에 대한 지지자 및 여권 인사들의 절대적 신앙심이다. 인권변호사로서의 경력이나 서울시장 취임 후의 정책 등으로 인해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가장 인연이 먼 인물로 여겨졌다. 이런 박원순의 이미지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라는 사고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생전의 업적을 기리는 행위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로 발전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도가 높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용기 있게 발화를 해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실상을 드러낸 것은 피해자에게는 위협이 되고 침묵을 강요하게 된다.

둘째는 이른바 ‘386 세대’ 네트워크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정치에 저항해 1980년대 민주화를 이끈 공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세대도 역시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장악하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다. 기득권 세력이 된 이들은 진영 보호에 힘쓰게 되었다.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2 차 가해를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도 보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자신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서로 강화하는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네트워크 위계’(이철승 2019)를 구성해 세대 간 격차도 유발했다. 이 뿌리 깊은 위계구조는 한국 특유의 ‘소용돌이(vortex)’(Gregory Henderson 1968) 사회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이런 위계구조가 성희롱과 성폭력이라는 과도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조건을 마련했다.

3. 한국 '#MeToo' 운동의 확산 요인과 의의

뿌리 깊은 위계구조가 형성되는 한국 사회에서 ‘#MeToo’운동이 폭발적인 확산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배경적 요인으로 2015 년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9)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 년대 주춤했던 페미니즘 운동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재부상되었다. 여성혐오 정서가 팽배한 온라인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페미니즘이

었다. 이어 2016 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위험이 있다는 공포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대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한국 #MeToo 의 확산을 가속시켰다.

또한 #MeToo 운동을 이끄는 것은 20, 30 대 여성들이다.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권력구조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이다. 특히 적어도 젊은 층이고 여성이라는 교차성을 가진 이들은 더욱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개인의 문제로 침묵을 강요 받아온 이들이 #MeToo 운동을 통해 발화의 방법을 얻었다.

그 발화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며 이것을 주류 매스미디어가 적극적으로 다룬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여성들의 집단 증언 결과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서 #MeToo 운동이 더욱 확산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게다가 지원 단체 등 전문가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던 것도 #MeToo 발화를 촉진한 요인일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이 철저히 피해자 편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박원순 사건은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뿌리 깊은 위계구조를 형성하면서도 #MeToo 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성폭력의 고발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사회구조를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권력 구조 하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권력행사는 인종, 국적, 나이 등 차별구조의 중첩에 따라 더욱 다양해진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MeToo 운동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형태로 지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맞서는 운동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과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MeToo’ 운동을 단면으로 하여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문제군의 상관성을 감안하여 운동의 확대 요인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 #MeToo 운동은 성폭력 고발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권력 구조를 해체하려 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원순 사건과 이를 둘러싼 일련의 흐름은 뿌리 깊은 사회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피해자측 보호단체의 적극적인 자세는 주목할 점이 많고 앞으로의 페미니즘의 전망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MeToo 운동의 확산에 있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가운데 운동이 크게 확산한 한국의 구체적인 현황을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일 언론보도 분석과 문헌조사에 그친 점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측 지원 전문기관이나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철순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이희은(2018) 「페미니즘 운동과 미디어 윤리; #미투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55(3), 120-157.

이미숙(2020) 「깎땀기를 깨려는 한국의 여성들 -지워지는 목소리에 항거해」 『다리를 좀 놓아주시겠습니까』 아키서방, 238-261.

Gregory Henderson(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번역 스즈키 스나오, 오오즈카 다카시게 번역(1973) 『조선의 정치사회; 조선현대사를 비교 정치학적으로 첫해명 <소용돌이 구조 분석>』 사이먼출판회.

주은혜, 백영민(2018) 「미투운동은 누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지지받는가? 미디어 동원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 37-65.

희정(2017)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